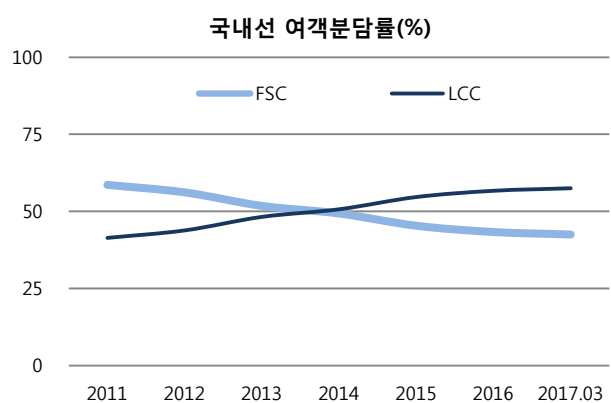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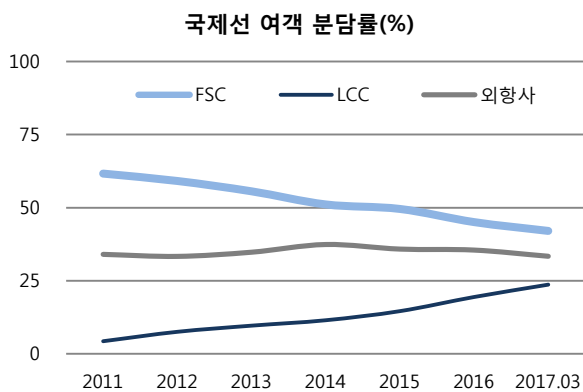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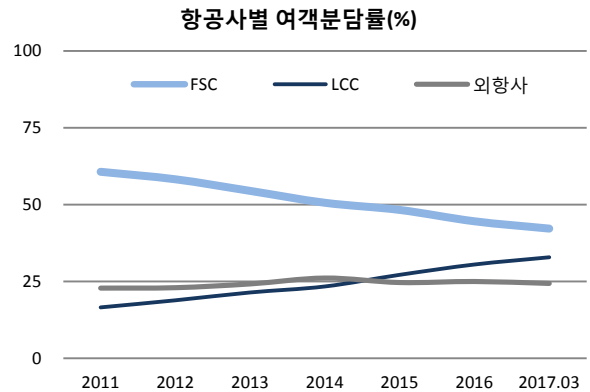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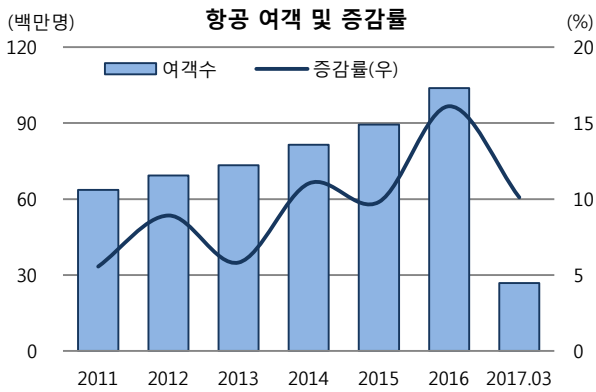


저가항공사의 비상이 지속될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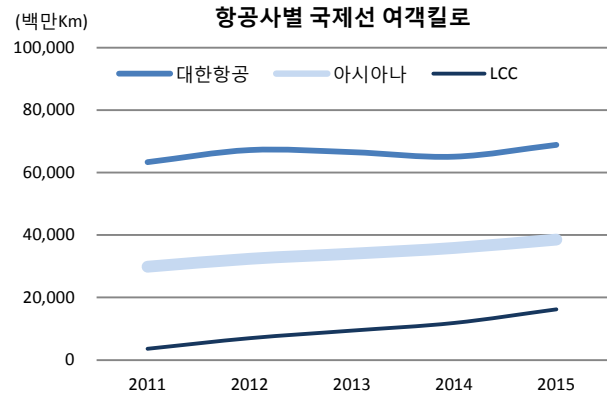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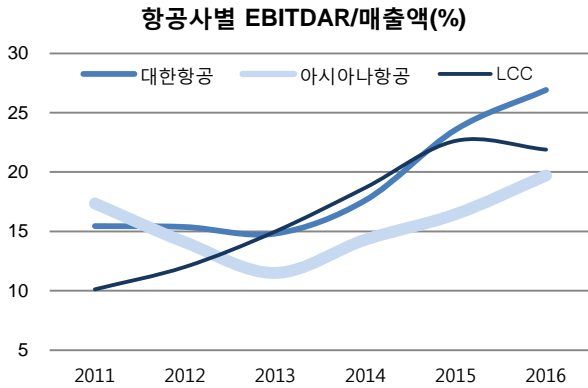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항공정보포털시스템

주: FSC(대형항공사)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산, LCC(저가항공사)는 제주항공, 진에어, 에어부산, 이스타항공, 티웨이항공 합산

주2: 2017.3월 항공여객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

- 항공 여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, 대형 및 저가항공사간의 노선별 여객분담률 차이 뚜렷
 - 국제선: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저가항공 시장 확대로 대형항공사의 여객분담률이 감소세
 - 국내선: 2014년 이후 여객분담률 역전(2017.3월 기준 LCC여객분담률 57.5%)



자료: 항공정보포털시스템

주: LCC(저가항공사)는 제주항공, 진에어, 에어부산, 이스타항공, 티웨이항공 합산

- LCC의 여객분담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형항공사의 여객킬로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
 - LCC는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단거리 국제선 중심으로 한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수요증가를 견인
 - 2013년 이후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LCC와 마찬가지로 EBITDAR 마진 개선
 - 또한,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킬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LCC의 성장이 대형항공사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

- 항공동맹(Alliance)결성과 중장거리 노선 취향으로 LCC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
 - 이스타항공 U-Fly Alliance 가입(총5개사)
 - 제주항공 Value Alliance 가입(총8개사)

- 단, 신규 LCC의 시장진입 가능성과 아시아지역 LCC의 국내 신규취향으로 LCC간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
 - 플라이양양(양양), 케이에어(청주), 에어대구(대구), 에어포항(포항), 남부에어(밀양), 프라임항공(울산) 등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준비중